



한울림교회

방송 설교

KRB

FM 87.7/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주일

6:30AM

단비 TV

토 9:00PM/월 11:00AM

Youtube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이들

전도사

권혁용, 김희원, 차유미

은퇴전도사 정주애

목사 김원재

어 버 이 주 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큐티 나눔(최옥경)	
교회소식	인도자
5월의기도	다같이
찬 양*	다같이
	면류관 벗어서(찬 25)
	어머니의 넓은 사랑(찬 579)
	선한 능력으로
	예수는 내 힘이요
기도인도	한윤미
봉 헌*	다같이
	내 주님 서신 발 앞에(찬 214장 4절)
말씀교독	다같이
	누가복음 1:26-38
특별찬양	사마임찬양대
	아버지의 사랑
말씀선포	김원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찬양과결단*	다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파송의말씀	인도자
축 도*	인도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아버이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YG에서 카네이션을 준비했고, 70세 이상 되신 분들께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 5월의 공동기도는 **“박미경 선교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4. **2022년 교회핸드북(주소록)**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주소나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가 바뀐 성도님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을 하지 않은 분들이나 새로 촬영하기 원하는 분들은 오늘(5/8)도 촬영이 있습니다. YG와 아동부는 모두 다시 촬영합니다. (담당 - 김희석)
5. 오늘 삶공부 통합OT가 예배 후 바로 지하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6. 지난 주일(5/1)부터 **친교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헌신할 분들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신청표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 아동부와 YG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수련회를 위해 **모금행사**를 가집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8.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에 있습니다. 영상새벽기도회는 Zoom으로 “월~토”에 계속 있습니다.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 321 0608 / PW: 0608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이주일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미국에서 어머니날로 정한 5월 8일이 가까운 5월 둘째 주일을 아버지주일로 목회력에서 넣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리며, 그 부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 전에 꽃을 달아드립니다. 달아드리는 카네이션은 중고등부에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부담스러워 달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이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다 다시기 바랍니다. 또한 70세 이상된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표를 확인하시고 예배 후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70세가 되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은 70세로 보지 않고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어르신 늦게 되라고 하는 것이니 불편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5/1)부터 친교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결정하기까지 망설이는 마음이 컸지만, 행복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시작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공동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하셨습니다, 아직 빈칸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비드 전보다 물가가 말이 아니게 올라서 헌신하는 분들의 비용을 높였습니다. 새 예배당에 입당하면 자체적으로 국을 만들면 지금보다는 더 내려가겠지만, 현재 사정상 음식을 다 사와야 하는 입장이라 물가에 따라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혹시 하고는 싶은데 부담이 되는 분들은 친교부 이정미 권사님과 상의하셔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자원표에 빈칸이 남으면 그날은 베이글로 간단히 먹으면 됩니다. 자원하는 분들은 억지로 하지 마시고, 부담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기쁘게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은 늘 은혜롭게 생각하시고, 마음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70세 이상 선물 받는 명단에 혹 내 이름이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겠거니 하시고, 친교 헌신을 했는데 비용이 부담이 되어도 비싸다 말하기 보다는 성도들이 함께 행복하게 식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조용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전도도 되고,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사람들도 모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성도 한 사람 즉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복된 헌신의 자리에서 서는 한울림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